

오일허브, UAE 원유 입고로 출항

200만배럴에 400만배럴 추가입고 ... 비상시 원유 안정수급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에서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유조선의 국내 입항 기념식을 열고 원유를 여수비축기지에 입고했다고 9월27일 발표했다.



6월 여수저장시설이 준공된 후 외국에서 원유가 입고된 것은 처음으로 2011년 11월 한국과 UAE 두 나라 정부가 석유분야 협력강화 차원에서 UAE 산 원유 600만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원유 600만배럴은 2012년 일일 소비량 기준으로 3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나머지 400만배럴도 6개월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장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상시에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UAE산 원유의 공동비축은 양국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로 향후 100년에 걸친 동반자 시대를 열어 가는데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북아오일허브는 여수와 울산에 3660만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과 국제석유거래소를 건설해 미국·유럽·싱가폴과 함께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2008년부터 추진했으며, 1단계 사업인 여수저장시설은 5170억원을 투자해 원유 350만배럴, 석유제품 47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27>